

내담자-참여자 중심 독서치료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Developing a Theoretical Model for Clients-participants Centered Bibliotherapy

임 성 관 (Seong-Gwan Lim)**

목 차

- | | |
|------------------|--------------------------|
| 1. 서론 | 2.3 인간중심상담의 과정 |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4 독서치료 및 인간중심상담의 과정 비교 |
| 1.2 연구 방법 | 3. 내담자-참여자 중심 모형 개발 및 평가 |
| 1.3 연구의 제한점 | 3.1 모형 개발을 위한 요소 도출 |
| 1.4 선행 연구 | 3.2 내담자-참여자 중심 모형 개발 |
| 2. 이론적 배경 | 3.3 내담자-참여자 중심 모형 평가 |
| 2.1 치료 모형 | 4. 결론 및 제언 |
| 2.2 독서치료의 과정 | |

초 록

심리치료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활동 분야이다. 따라서 심리치료사들은 치료 장면에서 만나는 내담자 및 참여자들을 적절히 돕기 위해 이론적 배경을 쌓고 수련을 통해 실습 경험도 채워 나간다. 더불어 적정 치료 모형을 만들어 방법과 효과에 대해 알리고 활용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독서치료 분야는 이미 2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여러 대상과 목표에 맞는 치료 모형이 개발 및 제안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간중심상담 이론을 바탕으로 독서치료의 주체가 되는 내담자-참여자들을 중심에 둔 독서치료 모형을 개발해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향후 여러 대상과 목표에 맞는 독서치료 모형 개발의 기초 및 참고가 될 것이다.

ABSTRACT

Psychotherapy is an area of psychology that helps/treats people who are experiencing psychological and emotional difficulties by non-medical means. Psychotherapists build up theoretical backgrounds, profiles, and/or techniques to adequately assist clients and participants in the treatment of these disorders. Despite the fact that South Korea has a history of nearly 20 years in the field of bibliotherapy, there has not been a developed or proposed psychotherapy treatment model that suits many objectives and goals utilizing bibliotherapy. In this study, based on the person-centered counseling theory, we intend to develop a model and approach focusing on the clients-participants who are subject to bibliotherapy. This study will be the basis and reference for the development of bibliotherapy model(s) suitable for various psychological objectives and goals in the future as an alternative or in addition to other psychotherapy methods and techniques.

키워드: 독서치료, 내담자-참여자, 독서치료 모형, 독서치료 방법, 독서치료 효과
Bibliotherapy, Client-participants, Model of Bibliotherapy, Bibliotherapy Method,
Effects of Bibliotherapy

* 본 논문은 2017년 6월 3일 신한대학교 벨오펀에서 열린 '2017 한국독서치료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휴독서치료연구소 소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강사(harin75@hanmail.net)
논문접수일자: 2017년 7월 17일 최초심사일자: 2017년 7월 17일 게재확정일자: 2017년 8월 19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3): 65-81, 2017. [http://dx.doi.org/10.4275/KSLIS.2017.51.3.065]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이 화두다. 이런 시대의 변화는 여러 분야 및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텐데, 특히 교육과 심리치료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상현실을 활용한 심리치료 콘텐츠는 지금-여기를 살고 있지만 과거-거기로부터의 부정적 경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직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이다. 즉, 대상별 유형별 맞춤형 가상현실을 제공해 각 내담자 및 참여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가상현실이라는 기술적 하드웨어와 각각의 콘텐츠라는 소프트웨어가 심리치료를 위한 여러 이론들은 물론이고, 각 이론을 기반으로 개발된 모형들을 통합 및 확장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서치료는 문학작품을 매개로 치료사와 내담자 및 참여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치료사가 제시한 문학작품은 내담자 및 참여자들에게 있어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가상현실이면서, 그럼에도 어딘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일시(identification)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맞춤형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그동안 많은 대상들을 위해 계획 및 실행

된 각각의 독서치료 프로그램들은 치료 대상과 유형에 따라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모형을 기반으로 계획 및 실행된 것은 아니지만, 모두 가상현실을 바탕에 둔 하나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심리치료 분야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독서치료 역시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실존적 모형의 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독서치료라는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치료과정의 전체적인 연속선상에서 일어나는 예상 가능한 단계들과 역할이 명료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치료사와 내담자가 각각의 문제나 이슈를 온전히 규명하고, 문학의 역할을 명료하게 하여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준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안내할 자료가 없다는 것은 독서치료의 다양한 적용 방식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사용되는 오류를 범하게 만든다. 즉흥적인 판단은 치료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담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치료에서 독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오류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자료를 활용하여 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식이나 틀을 갖춘 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나미현, 김병석 2016, 271-272).

이에 본 연구는 내담자-참여자¹⁾ 중심 독서치료 모형을 개발해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내담자 및 참여자는 독서치료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주체로서 치료의 목표와 과정, 나아가 치

1) 독서치료는 몇 사람이 참여하는가에 따라 그 유형을 개인치료와 집단치료로 구분한다. 이때 개인치료를 받는 사람은 내담자, 집단치료에 참여한 사람은 참여자라고 한다. 또한 이들을 통칭할 때는 치료 대상자라고 한다.

료 효과까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그들을 중심에 둔 독서치료 모형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면서 전형적일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어떤 대상과 어떤 유형의 문제를 만나더라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독서치료 프로그램 계획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내담자-참여자 중심 독서치료 모형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에 따라 연구를 실행하였다.

첫째, 연구 설계의 기초가 될 이론적 고찰 단계에서는 먼저 독서치료의 과정과 인간중심상담 이론을 살펴보았다. 또한 선행 연구를 통해 모형 개발에 필요한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둘째, 이론적 고찰 단계에서 도출된 근거를 중심으로 내담자-참여자 중심 독서치료 모형을 개발하였다.

셋째, 완성된 모형을 바탕으로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해 독서치료전문가들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넷째, 개발 및 제안된 모형이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 시 활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1.3 연구의 제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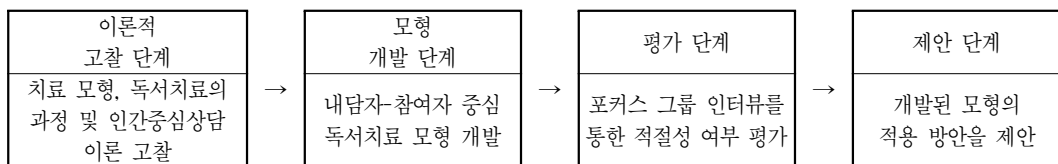
본 연구는 독서치료 프로그램 계획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내담자-참여자 중심 독서치료 모형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구성 단계에서 연구 모형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범주와 요소를 찾기 위해 현장에 있는 독서치료전문가들로부터 사전 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또 다른 모형을 개발해 제시할 때에는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하고자 한 모형은 인간중심상담이라는 심리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두었다. 왜냐하면 독서치료 역시 심리치료의 한 영역이고, 심리치료는 내담자 및 참여자라는 인간(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리치료 이론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독서치료가 중심이 아닌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1.4 선행 연구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아직 독서치료 모형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서치료와 문학치료는 물론이고, 관련 학문으로서 독서치료 관련 논문을 많이 발표하고 있는 문헌정보학 및 독서 관련 분야(국



<그림 1> 연구 과정

문학 등)를 두루 고찰하였다.

유현승(2008)은 '독서치료 수업 모형 개발과 학생 반응연구'를 통해, 독서교육에 독서치료 이론을 적용하여 독서교육과 독서치료의 목적을 모두 아우르는 독서치료 수업 모형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한 후, 이 모형이 독서치료의 목적과 원리 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서치료 수업 모형이 독서치료의 원리와 목적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독서치료 수업 모형의 3주차 수업 활동인 독서기록장에 기록된 학생 진술과 4주차 수업인 모듈 활동 장면을 관찰·분석한 결과, 독서치료 수업 모형이 독서치료의 목적과 원리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독서교육의 효과뿐만 아니라 정서 치료 및 치유라는 독서치료의 효과까지 함께 얻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말하였다.

이기명과 이제환(2012)은 '치료적 독자상담의 이론적 근거와 개념적 모형에 관한 연구'를 통해, 독서치료를 치료적 독자상담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 문헌정보학 분야의 관련 이론들을 검토하고, 그러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하여 치료적 독자상담의 개념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근거에 대한 논의에서는 구성주의적 관점의 정보행태 이론, 특히, 더빈이 제시한 '의미형성이론'과 켈다우가 활용한 '불확실성 이론'이 치료적 독자상담을 위한 이론적 근거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나아가 '치료적' 독자상담의 과정을 세부 단계로 구체화하여 독자상담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개념적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박재현(2012)은 '문학치료에 있어서의 치료 모형 모색' 연구를 통해, 문학이 가지는 치료적

개념을 토대로 문학치료에 대한 접근법과 연구 방법에 대해 본원적인 검토를 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병이라는 개념은 의학적, 철학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개인과 사회를 모두 아우르는 병리적 현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치료의 개념 또한 의학적, 철학적, 사회적, 종교적, 예술적 측면을 아우르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문학치료는 완치, 재활, 예방, 완화 치료의 관점을 모두 포괄할 수 있으며,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서사를 성찰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문학치료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고치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종교적, 예술적 차원에서 볼 때 문학치료에서는 문학이 가지는 위로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문학이 치료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문학이 독자에게 주는 치료적 효과를 다른 제반적 환경을 모두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학이 가지는 본래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문학치료의 연구방법은 치료적 기능에 대한 분석 연구, 질적 연구 등의 다양한 접근법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문학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심미적 가치에 대한 평가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나미현과 김병석(2016)은 '독서상담 과정 모형 개발' 연구를 통해, 독서치료 과정의 한계를 보완하여 상담자들이 독서 매체를 효과적으로 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절차에 따라

독서상담 과정 모형을 개발해 제시하였다. 먼저 모형 기획 단계에서는 독서치료에 대한 이해 및 중요 요소들이 무엇인지 탐색하기 위해 요구조사를 실시하였고, 문헌고찰을 통해 독서치료의 기본원리와 개념적 모형을 탐색하고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Patterson과 Welfel(1994)이 제시한 상담과정의 통합적 모형을 바탕으로 독서상담 과정의 기본 틀을 구축하였다. 이어서 모형 구성단계에서는 연구 모형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범주와 요소를 찾기 위해 현장에 있는 독서치료 실무자, 심리상담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후 예비 모형과 최종 모형은 각각 전문가 집단을 통해 내용 타당도 검증을 거쳐 수정 후 제시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본 네 편의 논문들은 비록 기초 학문 분야가 독서치료, 문헌정보, 문학치료 등으로 다르지만 모두 모형에 관해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유현승(2008)의 논문은 독서교육과 독서치료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특정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 모형에 그친 아쉬움이 있다. 또한 이기명과 이제환(2012)의 연구 역시 공공도서관에서 실행할 수 있는 독자상담(Readers' advisory)의 측면으로 독서치료적 성격을 도입하고 있어, 넓게는 독서치료의 한 유형이자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통적인 치료 모형과는 거리가 있다. 이어서 박재현(2012)의 연구는 문학이 갖고 있는 치료적 힘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념에 대한 정립과 폭넓은 분야로의 접목이 필요하다는 제언은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모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전통적 독서치료의 맥락에 맞으면서 어떤 대상과 목표를 위한 프로그램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 모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나미현과 김병석(2016)의 연구는 '독서상담'이라는 용어 선택을 통해 독서치료와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나, 기획에서부터 개발된 모형을 제시하는 단계, 나아가 내용 타당도 검증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다. 다만 개인 치료의 측면에 맞추어 모형을 개발 및 제시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내담자-참여자 중심 독서치료 모형 설계에 기반이 될 이론적 배경은 치료 모형, 독서치료의 과정, 인간중심상담, 그리고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2.1 치료 모형

모형은 형식체계에 대한 해석을 하거나/혹은 별개의 것으로 하나의 사물에 대해 규범적인 유추(때로는 은유에 의해서)로서 도시(圖示, 표상, representation)하는 것을 말하며, 전형적으로 모형은 두 가지 이상의 대상사이에 관계가 지워지는 유비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의 것이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추론이 이루어진다(이호중 2007, 76-78).

그러나 Hesse(1966, 18-19)는 모형이 설명적 이론의 논리적 구조의 한 부분이 아니며, 그런 이론을 발견하는데 항상 유용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된 이론을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모형은 만들 수 있거나 없거나, 그럴 수 있거나 없거나, 또는 상상할 수 있거나 없거나에 관계없이, 이론을 예견할

수 있도록 하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치료 모형은 치료 관계에 대한 도시 이자 구조의 해석이며, 치료사와 내담자 및 참여자 사이에 개입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2 독서치료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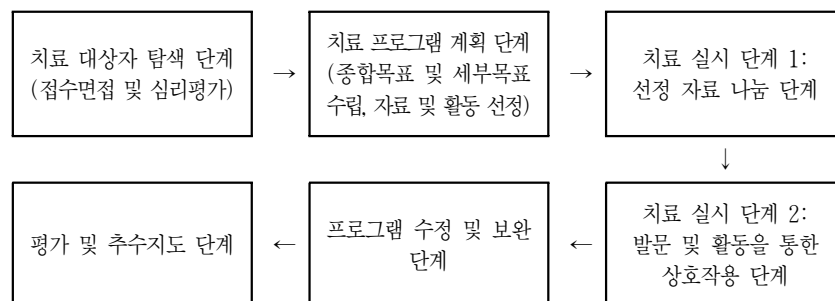
과정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한 단계씩 실행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치료과정은 치료사들이 특정한 치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모든 계획과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독서치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체계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절차에 따라 실행이 될 필요가 있다(임성관 2016, 422). 다음의 <그림 2>는 Hynes와 Hynes-Berry(1994), Watson(1994), Doll과 Doll(1997)이 제안한 독서치료의 과정을 임성관(2016, 424)이 재정리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그림 2>에 따르면 독서치료의 과정은 간단히 여섯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시작은 치료 대상자에 대한 탐색 단계로 접수면접(interview)과 필요 시 심리평가가 실시된다. 이 단계를 통해 탐색된 결과는 종합목표 및 세부목표 수립

과 자료 및 활동 선정을 통해 프로그램 계획을 완성하는 밑바탕이 된다. 이어서 치료 실시 단계에서는 선정된 자료를 나누고 발문 및 활동을 통해 상호작용을 실시한다. 더불어 해당 세션(session)이 끝나게 되면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및 보완 단계를 거쳐 전체 프로그램이 끝난 뒤 종합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때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언제든지 평가(supervision)를 받을 수 있으며, 프로그램이 종결된 후에는 추수지도 단계(post monitoring)까지 실행해야 한다. 이때 독서치료 모형은 1단계 치료 대상자 탐색 단계를 거쳐 2단계 치료 프로그램 계획 단계에 접목이 되어, 각 대상자에게 맞는 모형으로 변형 및 발전될 수 있다.

2.3 인간중심상담의 과정

1940년 Carl Rogers에 의해 창시된 인간중심상담 이론은 정신분석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에 반하며 등장한 것으로, 내담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인정하고 그것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으로부터 시작한다(윤혜성 2010, 5).



<그림 2> 독서치료의 과정

Rogers(1980, x vii)는 일찍이 '나는 더 이상 심리치료를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관점, 철학, 삶의 방법, 존재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러한 접근법은 개인이나 그룹, 또는 공동체의 성장이 주요한 목표가 되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이론의 철학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다음은 Rogers(1942, 30-45)가 상담의 진행 과정과 구체적인 방법으로 소개하였던 12단계이다.

1단계, 내담자가 도움을 받으러 온다. 보통 내담자가 상담자를 찾은 것은 본인의 의지 또는 타율적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결국 내담자가 상담자를 찾아오는 행위 자체에 대해 내담자는 스스로의 자율성과 책임을 느끼게 되어야 하며, 상담을 받으러 온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것에서부터 상담은 출발한다.

2단계, 상담 상황이 규정된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당신의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상호관계를 보다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장소, 분위기를 제공해 주며, 그것이 상담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상담 상황에 대한 실제적인 책임감과 결정은 내담자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

3단계, 상담자는 문제에 대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내담자를 격려한다. 내담자가 나타낼 수 있는 적의, 불안, 죄책감, 우유부단함 등의 감정의 흐름을 막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4단계, 상담자는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하고 인정하며 명확히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부정

적인 감정을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 원인에 대해 해석하거나 효율성에 대해서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러한 감정들을 말로써 명확히 해준다. 즉 감정들을 단순히 하나의 사실로서 수용하고 내담자의 표현을 더욱 분명히 언어화시켜 나타내는 것이다.

5단계, 내담자의 부정적인 감정이 표현되면 뒤이어 긍정적인 충동이 약하게 뒤따르게 된다. 내담자는 깊고 격렬한 부정적인 표현을 종종 하게 된다. 그러나 이 부정적인 표현이 수용된 후에는 이윽고 근본적인 자기존중 및 성숙해지려는 욕구 등의 긍정적인 표현이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긍정적 감정이 대두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6단계, 상담자는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하고 인정하듯, 긍정적 감정도 수용하고 인정한다. 성숙한 충동과 미성숙한 충동, 공격적 태도와 사회적 태도, 죄책감과 긍정적인 표현 양쪽을 다 수용해주면, 내담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참모습을 이해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부정적 감정에 대해 방어할 필요가 없으며 긍정적 감정을 과대평가하지도 않게 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통찰과 자기이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7단계, 통찰, 즉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나타난다.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은 새로운 수준의 통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8단계, 가능한 선택과 행동 방향을 명확히 해주는 과정이 통찰의 과정과 혼재되어 나타난다. 통찰의 과정은 다른 과정들과 뚜렷하게 구분지어서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여러 다양한 선택을 분명히 알도록 해주고,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두려운 감정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

하도록 도와야 한다. 다만 행동을 강요하거나 조언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한다.

9단계, 비록 강도는 약하지만 내담자의 적극적인 행위가 나타난다. 차츰 내담자는 위축된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적극적 행위를 보이게 된다. 통찰이 이루어지면 통찰에 의한 행동은 새로운 통찰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10단계, 자신에 대해 더욱 완전한 이해를 하게 된다. 내담자는 적지 않은 통찰을 얻고, 두렵지만 시험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더욱 완전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11단계, 더욱 더 통합된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 내담자는 선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지고, 자신이 결정한 행동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된다. 흔히 이 단계에서 내담자는 처음으로 상담자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알고 싶어 하며, 우호적이고 진정한 관심을 나타내게 된다.

12단계, 내담자는 도움을 받을 필요가 점차 없어진다고 느끼며, 상담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인식하게 된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과, 더 이상 면담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수용하고 인정함으로써 마지막 단계에서 내담자가 느끼는 감정 역시도 명확하게 해준다. 내담자는 흔히 '상담자의 시간을 너무 소비시켜 미안하다.', '그동안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척 즐거웠다.' 등의 표현을 알게 된다.

이상으로 정리한 Rogers의 인간중심상담 12단계는 Doll과 Doll(1997)이 제시한 5단계 독서치료 모델(준비 단계-읽힐 자료의 선택 단계-

자료의 소개 단계-이해를 돕는 단계-후속 조치와 평가 단계)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으며, 발문의 기초 원리인 동일시-카타르시스-통찰의 원리로 바꾸어 설명할 수도 있을 만큼 통하는 맥락이 있다. 왜냐하면 결국 치료는 내담자 및 참여자가 중심에 있으면서, 그들에 변화는 스스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담자-참여자가 중심 독서치료 모형 개발에 있어서도 가장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심리학적 이론으로 인간중심상담 이론을 선정한 것이다.

2.4 독서치료 및 인간중심상담의 과정 비교

〈표 1〉은 Rogers(1942)가 제안한 인간중심상담의 12단계가 임성관(2016)이 정리한 독서치료의 6단계와 어떻게 부합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비교 정리한 것이다.

〈표 1〉을 보면 인간중심상담의 12단계는 독서치료의 6단계로 종합 정리가 될 수 있다. 먼저 인간중심상담의 1단계인 '내담자 방문'은 독서치료의 1단계인 '치료 대상자 탐색 단계'이다. 이어서 인간중심상담의 2단계인 '상담 상황의 규정'은 독서치료의 2단계인 '치료 프로그램 계획 단계'이다. 또한 인간중심상담의 3~11단계는 본격적인 상담 치료 과정이면서 동시에 매 세션(session)의 결과에 따라 수정 및 보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때이다. 따라서 독서치료의 3~5단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중심상담의 12단계인 '상담 종결'은 독서치료의 6단계인 '평가 및 추수지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독서치료에서의 평가는 1단계부터 이루어질 수 있으나, 여기서는 전체 프로그램을 종결한 뒤 진행하는 평가로 이해하면 된다.

〈표 1〉 독서치료 및 인간중심상담 과정 비교 정리

분야 단계	인간중심상담 과정 (Rogers 1942)	독서치료 과정 (임성관 2016)
1	내담자 방문	치료 대상자 탐색 단계
2	상담 상황의 규정	치료 프로그램 계획 단계
3	문제에 대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내담자를 격려	치료 실시 단계 1: 선정 자료 나눔 단계
4	부정적 감정에 대한 수용 및 인정	
5	내담자는 부정적 감정의 표현과 긍정적 감정의 대두	
6	내담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참 모습을 이해	
7	내담자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	치료 실시 단계 2: 발문 및 활동을 통한 상호작용 단계
8	내담자의 가능한 선택과 행동 방향을 명확히 해주는 과정이 통찰의 과정과 혼재되어 나타남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 단계
9	내담자의 적극적인 행위가 나타남	
10	내담자 자신에 대한 더욱 완벽한 이해가 나타남	
11	내담자의 더욱 더 통합된 적극적인 행동이 나타남	평가 및 추수지도 단계
12	상담 종결	

3. 내담자-참여자 중심 모형 개발 및 평가

3.1 모형 개발을 위한 요소 도출

〈표 2〉는 내담자-참여자 중심 독서치료 모형 개발을 위해 치료 상황과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하위 요소, 나아가 세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치료 상황과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내담자-참여자', '문제 표출', '인적 자원', '영향 변인', '문제 해결'의 총 다섯 가지를 도출하였다. 또한 하위 요소로는 '내담자-참여자'에서 '성별 및 연령'과 '참여 동기' 두 가지, '문제 표출'에서는 '접수면접(참여 신청서)', '독서평가', '심리평가', '태도' 네 가지, '인적 자원'에서는 '치료사', '보조치료사', '가족', '집단원' 네 가지, '영향 변인'에서는 '문학작품', '발문', '활동' 세 가지, 마

지막으로 '문제 해결'에서는 '성장', '적응' 두 가지를 도출하였다. 나아가 이렇게 도출된 열다섯 가지의 하위 요소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작성해 설명을 더했다.

모든 치료는 결국 내담자 및 참여자라는 치료 대상자들이 동기를 갖고 참여했을 때 성립된다. 또한 그들이 어떤 문제를 표출하는냐에 따라 목표가 수립되면서 전체 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 접수면접과 여러 측면에서의 평가를 진행한다. 이어서 치료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적 자원과 협력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면서, 독서치료 프로그램 구성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문학작품과 발문, 활동에 있어서도 많은 고려를 한다. 결국 모든 치료 작업은 대상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삶 속으로 돌아갔을 때 적응과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요소 및 하위 요소를 결정했다고 보면 된다.

〈표 2〉 내담자-참여자 중심 독서치료 모형 요소별 세부 내용

요소	하위 요소	세부 내용
내담자-참여자	성별 및 연령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구분 지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참여 동기	진행될 치료 프로그램의 참여 형태와 예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기본 요소
문제 표출	접수면접 (참여 신청서)	주 호소, 문제 발생 배경, 문제 반복 요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
	독서평가	독서능력, 독서흥미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요소
	심리평가	심리 정서적 측면에 호소하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분류할 수 있는 요소
	태도 등	주관적 측면에서 문제를 점검하고 분류할 수 있는 요소
인적 자원	치료사	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책임자로서의 요소
	보조치료사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치료사를 돕는 부책임자로서의 요소
	가족	내담자-참여자의 가정환경을 결정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요소
	집단원	타 참여자들을 공감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모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 3의 치료사로서의 요소
영향 변인	문학작품	내담자-참여자가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 단계를 거쳐 자신의 삶을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독서치료의 핵심 요소
	발문	
	활동	
문제 해결	성장	카타르시스와 통찰을 통해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삶의 장면에서 잘 적응해 나감으로 인해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음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요소
	적응	

3.2 내담자-참여자 중심 모형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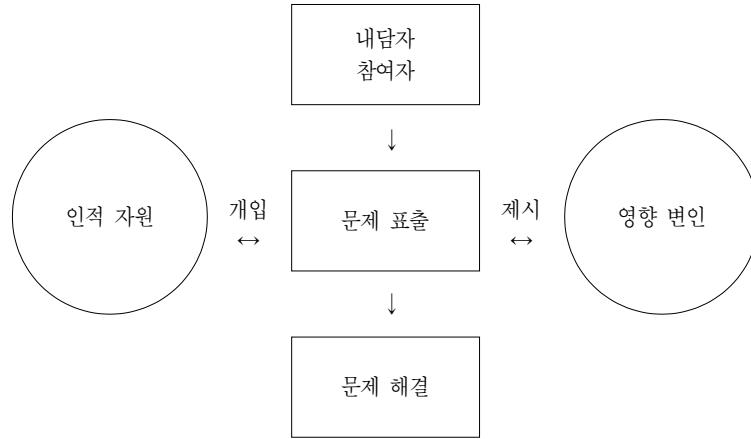
내담자-참여자 중심 독서치료 모형은 독서치료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내담자와 참여자를 중심에 두고, 그들이 호소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사와 문학작품, 그리고 발문과 활동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측면에 중점을 둔 것이다. 이 모형은 앞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 가운데 내담자의 잠재적 능력을 인정하고 그것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지닌 인간중심상담 이론과 〈표 2〉에 제시한 요소 및 세부 요소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세부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 따르면 내담자-참여자 중심 독서치료 모형은 내담자 및 참여자가 동기와 잠재력을 지닌 채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갖고

있는 문제를 표출하고 해결해 나가는 전 과정에 있어 인적 자원인 치료사와 보조치료사, 가족과 집단원(집단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경우)의 개입과, 영향 변인인 문학작품과 발문, 그리고 활동의 제시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의미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를 Rogers (1942)의 상담의 진행과정과 구체적인 방법 12 단계에 대입하면 '내담자 및 참여자'는 1-2단계, '문제 표출'은 3-9단계, '문제 해결'은 10-12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3.3 내담자-참여자 중심 모형 평가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개발 및 제안한 내담자-참여자 중심 독서치료 모형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설계 및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한 사례는 아직 없다. 따라서 내담자-참여자 중심 모



〈그림 3〉 내담자-참여자 중심 독서치료 모형

형 개발이 독서치료 현장에 적합한 것인지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독서치료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3.3.1 인터뷰 실시를 위한 사전 준비

인터뷰를 실시하기 열흘 전,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에 맞는 질문을 미리 구성하여 참여자들에게 이메일 발송을 하였다. 모든 질문은 개방형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체 인터뷰를 진행하

는 소요 시간이 1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였다. 연구자가 구성해 참여자들에게 미리 보낸 질문지는 Krueger와 Casey(2000)가 제시한 질문방식을 수정해 도입 질문(opening questions), 소개 질문(introductory questions), 주요 질문(key questions), 마무리 질문(ending questions)의 네 종류로 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자가 개방형 질문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 내용

질문 과정	항목	적용	질문 문항
도입 질문 (opening questions)	독서치료 모형에 대한 인식	연구자 및 참여자들 간에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인터뷰 주제와 관련된 비교적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독서치료 모형'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개 질문 (introductory questions)	독서치료 모형에 대한 개념	인터뷰 주제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생각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서치료 모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주요 질문 (key questions)	내담자-참여자 중심 독서치료 모형의 적절성 여부	이론적 배경 등을 충분히 고찰하고, 치료사로서 자신의 경험을 더하여 개발된 모형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내담자-참여자 중심 독서치료 모형'이 독서치료 기본 모형으로써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무리 질문 (ending questions)	모형의 적용 방안	개발된 모형을 독서치료 프로그램과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나눈다.	본 모형을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 시 활발히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4〉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자 주요 인적 사항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	학력/전공	독서치료 경력
1	남	44세	상담심리 박사 졸업	10년
2	남	39세	상담심리 박사 수료	9년
3	여	56세	사회복지 박사 수료	9년
4	여	48세	상담심리 박사 재학	8년
5	여	39세	경영학 석사 졸업	6년
6	여	47세	교육학 석사 졸업	7년

이어서 〈표 4〉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독서치료전문가들의 주요 인적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가한 연구 참여자들의 주요 인적 사항을 정리 및 분석한 결과 성별은 남성이 2명, 여성이 4명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연령은 최소 39세부터 최대 56세까지이며 평균 45.5세로 나타났다. 이어서 연구 참여자들의 학력 및 전공을 살펴보면 모두 석사 재학 이상으로, 상담학이 3명으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학, 경영학, 교육학이 각 1명씩이었다. 또한 치료사로서의 경력은 최소 6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총 경력을 다 합하면 47년이며, 이를 다시 나누면 평균 7.8년으로 나타났다.

3.3.2 인터뷰 실시

인터뷰는 2017년 6월 24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에 걸쳐 경기도 A시에 위치한 H독서치료연구소에서 실시가 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음을 했고, 연계 질문 및 내용 정리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된 내용들은 별도로 메모하였다. 질문은 네 단계의 과정에 맞추어 미리 만들어 두었던 네 개를 중심으로, 정해진 1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조율하였다.

3.3.3 인터뷰 내용 분석

Krueger와 Casey(2000)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 분석에서 중요한 요소를 ‘체계적(systematic), 입증 가능한(verifiable), 순차적 인(sequential), 계속 이어지는(continuous)’으로 설명하고 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자료들은 Morgan과 Scannell(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 중 개방형 코딩을 적용하여 중요한 주제와 범주를 찾는 형식으로 분석하였다. 즉 개념들을 명명하고, 유사한 내용의 개념들을 범주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다음은 문항에 따른 인터뷰 참여자들의 답변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문항 1) 도입 질문: 독서치료 모형에 대해 들어보

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독서치료학회 학술대회를 통해 처음 접했습니다. 왜 아직까지 모형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연구 참여자 1, 남/44세, 독서치료 경력 10년)

저도 그 학술대회를 통해 처음 들었고, 덕분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연구 참여자 3, 여/56세, 독서치료 경력 9년)

제게도 생소한 용어입니다. (연구 참여자 6, 여/47세, 독서치료 경력 7년)

이상의 답변을 정리해 보면 독서치료전문가 들마저 독서치료 모형에 대해 처음 들었거나 생소하다는 답변을 통해 관련 인식이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 2) 소개 질문: '독서치료 모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어떤'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즉,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어떤 모형일지에 대한 궁금증이 먼저 생깁니다. (연구 참여자 2, 남/39세, 독서치료 경력 9년)

'드디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모든 분야는 차츰 발전해 나갑니다. 따라서 독서치료 역시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제 모형을 구상하고 집목해야 할 단계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분야가 성장을 했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연구 참여자 4, 여/48세, 독서치료 경력 8년)

'제대로'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잘 만들어진 모형은 향후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활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면서도 치료 효과도 큰 모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모형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 5, 여/39세, 독서치료 경력 6년)

이상의 답변을 정리해 보면 독서치료전문가 들은 모형에 대해 궁금증과 함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것이기를 바라는 마음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항 3) 주요 질문: '내담자-참여자 중심 독서치료 모형'이 독서치료 기본 모형으로써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치료와 집단치료 모두를 아우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연구 참여자 1, 남/44세, 독서치료 경력 10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치료는 그들이 주인공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중심에 둔 모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참여자 2, 남/39세, 독서치료 경력 9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담자 및 참여자가 없다면 치료는 구성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중심으로 여겨지는 모형 제목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참여자 3, 여/56세, 독서치료 경력 9년)

이상의 답변을 정리해 보면 독서치료전문가 들은 내담자-참여자 중심 독서치료 모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모든 치료에 있어 내담자 및 참여자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문항 4) 마무리 질문: 본 모형을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 시 활발히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형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하고, 그 효과에 대해 사례 나눔을 통해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여러 치료사들에게 의해 활발한 접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연구 참여자 4, 여/48세, 독서치료 경력 8년)
사례 발표회를 통한 나눔도 좋지만 지방에 있는 등의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모형이 활용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책으로 출간도 하고 학술 연구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 5, 여/39세, 독서치료 경력 6년)
 다른 선생님들께서 맞은 말씀을 다 해주셔서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연구 참여자 6, 여/47세, 독서치료 경력 7년)
 이상의 답변을 정리해 보면 독서치료전문가

들은 개발된 모형을 널리 알리기 위해 효과적으로 접목 및 실시된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측면에서 갖자는데 동의했다.

이어서 <표 5>는 내담자-참여자 중심 독서치료 모형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5> 내담자-참여자 중심 독서치료 모형에 대한 인터뷰 결과 통합 분석

개념	범주	주제
문항 1) 도입 질문: 독서치료 모형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독서치료학회 학술대회를 통해 처음 접했음	학술대회와 이번 기회 등 최근에 알게 되었음	독서치료 모형에 대해 생소함
학술대회를 통해 처음 들었음		
소장님을 통해 처음 들었음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음		
생소한 용어임	여전히 생소함	
이 분야에서는 생소함		
문항 2) 소개 질문: '독서치료 모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어떤'이라는 단어가 생각남	모형 자체에 대한 호기심이 담겨 있음	모형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제대로 된 체계이기를 바람
'드디어'라는 단어가 생각남		
'제대로'라는 단어가 생각남	우려가 섞여 있으며 적절한 모형일 것을 요청하고 있음	
'알맞게'라는 단어가 생각남		
'적절'이라는 단어가 생각남		
'체계'라는 단어가 생각남		
문항 3) 주요 질문: '내담자-참여자 중심 독서치료 모형'이 독서치료 기본 모형으로써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함	적절하다고 생각함	적절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더 좋은 모형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적절하다고 생각함		
적절하다고 생각함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함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함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함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함		
문항 4) 마무리 질문: 본 모형을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 시 활발히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램 개발 및 사례 나눔이 필요함	개발 및 적용 사례 나눔이 필요함	사례 나눔 및 학술적 출간 필요함
모형 소개와 함께 적용 사례 나눔이 필요함		
우수 사례 나눔이 필요함		
사례 나눔이 필요함	학술적 가치가 있는 출간이 필요함	
도서 발간 및 학술 논문으로의 발표가 필요함		
모형을 적용한 프로그램 개발 매뉴얼 발간이 필요함		

〈표 5〉는 Krueger와 Casey(2000)가 제시한 질문 방식을 수정하여 도입 질문, 소개 질문, 주요 질문, 마무리 질문의 4가지 종류로 정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 때 질문하고 정리한 답변 내용들을, Morgan과 Scannell(1998)이 제시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도서관 독서치료사로서 치료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해 4개의 주제, 8개의 범주, 24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인간중심상담 이론을 바탕으로 치료의 주 대상인 내담자와 참여자를 염두에 둔 '내담자-참여자 중심 독서치료 모형'을 개발해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 결과 독서치료 분야에서 한 번도 다루어지지 않은 모형을 개발하고 제시했다는 데 의의는 물론이고, 연구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이론적 고찰 과정을 통해 도출한 근거를 중심으로 내담자-참여자 중심 독서치료 모형을 개발해 제시하였다. 또한 모형의 요소로 '내담자-참여자', '문제 표출', '인적 자원', '영향 변인', '문제 해결'의 다섯 가지와, 하위 요소로 '성별 및 연령', '참여 동기', '접수면접(참여 신청서)', '독서 평가', '심리평가', '태도', '치료사', '보조치료사', '가족', '집단원', '문학작품', '발문', '활동', '성장', '적응'의 열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둘째, 개발된 독서치료 모형의 내용 타당도 검증에 위해 독서치료전문가들을 모시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해, 본 모형은 내적 타당도가 있기 때문에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 시

적극적으로 접목될 필요성에 대해 검증받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제시한 내담자-참여자 중심 독서치료 모형은 다양한 대상들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두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동안 현장에서 행해진 대부분의 독서치료 프로그램들이 내담자-참여자 중심 모형이었겠지만,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제안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효과를 검증한 연구 또한 아직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향후 독서치료 분야의 발전과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내담자-참여자 중심 독서치료 모형의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는 바이다.

첫째, 독서치료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신분석학, 분석심리학, 개인심리학, 형태심리학, 긍정심리학 등 여러 상담치료 이론을 기반으로 한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독서치료는 분명 심리치료의 한 영역이지만 아직도 국내에서는 그 자체만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다. 따라서 이미 인정을 받고 있는 여러 심리학적 이론들과 접목을 시킨 모형을 활발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모형은 물론이고 여러 심리학적 이론과 접목시킨 모형의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대상과 유형에 적합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매뉴얼의 개발 및 제시는 현장 독서치료전문가들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나아가 효과에 대한 검증과 사례 및 연구 발표를 통한 나눔의 기회도 증가시킬 가능성 또한 높다. 이는 결국 독서치료의 효과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시키는 일이 될 것이므로 우선 필요하면서도 중요한 측면이다.

참 고 문 헌

- [1] 나미현, 김병석. 2016. 독서상담 과정 모형 개발. 『상담학연구』, 17(5): 269-288.
- [2] 박재현. 2012. 문학치료에 있어서의 치료모형 모색. 『문학치료연구』, 24: 37-69.
- [3] 유현승. 2008. 『독서치료 수업 모형 개발과 학생 반응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 독서지도학과.
- [4] 윤혜성. 2010. 『인간-중심 상담의 활성화 방안 연구: 인간-중심 학습자들의 자기보고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 [5] 이기명, 이제환. 2012. 치료적 독자상담의 이론적 근거와 개념적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1): 53-72.
- [6] 이호중. 2007. 『과학사사전 연구보고서: 2-1 과학철학』. 서울: 한국과학사학회.
- [7] 임성관. 2016. 도서관 독서치료사의 독서치료 경험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2): 417-436.
- [8] Doll, B. and Doll, C. 1997. *Bibliotherapy with Young People: Librarians and Mental Health Professionals Working Together*. Englewood, Colorado: Libraries Unlimited, Inc.
- [9] Hynes, A. M. and Hynes-Berry, M. 1994. *Biblio/Poetry Therapy-The Interactive Process: A Handbook*. Minnesota: North Star Press of St. Cloud, Inc.
- [10] Hesse, Mary B. 1966. *Models and Analogies in Science*. Londo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11] Krueger, R. A. and Casey, M. A. 2000. *Focus Group: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3rd ed.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 [12] Morgan, D. L. 1998. *Planning Focus Group*.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13] Patterson, L. E. & Welfel, E. R. 1994. *The Counseling Process*. 4th ed. California: Thomson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14] Rogers, C. R. 1942.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15] Rogers, C. R. 1980. *A Way of Being*.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16] Watson, D. C. 1994. *The Effects of Three Bibliotherapy Techniques on Fourth Graders' Self-Esteem, Reading Achievement, and Attitudes Toward Reading*. Ph.D. diss.,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U.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Na, Mi-hyeon and Kim, Byeong-seok. 2016. "Development of a Biblio-counseling Process

- Model.”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7(5): 269-288.
- [2] Park, Jae-Hyun. 2012. “The Function of Literacy from the Therapeutic Perspective.” *Journal of Literary Therapy*, 24: 37-69.
- [3] Yoo, Hyun Seung. 2008. *The Development of Bibliotherapy Class Model and the Study of Students’ Feedback*. M.A. thesis, Department of Reading Instruction,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Cultural Studies, Kyonggi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 [4] Yoon, Hye-seong. 2010. *A Study on the Promotion of Person-centered Counseling*. M.A. thesis,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al Duksung Women’s University.
- [5] Lee, Kee-Myung and Lee, Jae-Whoan. 2012. “Theoretical Foundations and a Conceptual Model of Therapeutic Readers’ Advisory Servic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1): 53-72.
- [6] Lee, Ho-Joong. 2007. *Research Report for Dictionary for History of Science.: 2-1 Philosophy of Science*. Seoul: The Korean History of Science Society.
- [7] Lim, Seong-Gwan. 2016. “An Analysis on Bibliotherapy Experiences of Bibliotherapists in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2): 417-436.

